

- EBS 2019 수능특강 **현대소설** 목록 -

장르	작품	작가	교과서	출제 현황	쪽수	참고
현대 소설	만세전	염상섭	문7	2014_6 B(본), 2006_9(본)	23	
				2017_6, 1999 수능, 1994 수능(1차)		
	고향	현진건	문1	2015 수능 A·B, 2000 수능, 1994 수능(2차)	12	
	사하촌	김정한	문1	2015_6 A·B, 2004_6, 2002 수능	53	
	태평천하	채만식	문5/국3	1998 수능(본)	49	
				2016 수능 B, 2014_6 A 1996 수능, 1994 수능(2차)		
	비 오는 길	최명익	교과서 외		77	
	천변 풍경	박태원	국1	2013 수능(본)	46	
				2008_6		
	별을 헨다	계용묵	교과서 외	2015_6 A	56	
	이리도	황순원	교과서 외	2017_9, 2002 수능, 1994 수능(1차)	34	
	광장	최인훈	문8	2014_9 B(본), 2006 수능(본), 1994수능(1차)(본)	14	
				2011_9, 2003 수능		
	비 오는 날	손창섭	문1		59	
	오발탄	이범선	교과서 외	2002 수능(본)	31	
	엄마의 말뚝 2	박완서	문1	2005_9(본)	28	
				2016 수능 A		
	날개 또는 수갑	윤홍길	문1	2016 수능 B, 2001 수능	62	
	사평역	임철우	문3	2018_9, 2011_6	64	
	마당 깊은 집	김원일	교과서 외	2015_9 B, 2011_9	18	
한계령	양귀자	교과서 외	2019_6(본)	68		
			2014 예비 A			
징 소리	문순태	교과서 외	2004_9(본)	42		
줄	이청준	문1	2014 수능 B, 2010_9, 2006_6	37		
새의 선물	은희경	국1		72		

☐ 출제 현황에서 ‘파란 바탕의 (본)’은 작품 출제, ‘하얀 바탕’은 작가 출제입니다.



3. 마당 깊은 집, 김원일

■ 작품 정리

■ 해제

부유한 집 주인과 가난한 피란민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마당 깊은 집'의 시절로 회상되는 1950년대 중반, 전쟁의 상처 속에서 자라난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이 작품은 한국 전쟁 직후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궁핍한 아래층 사람들과 부유한 위층 사람들의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는 당대 현실을 이해하게 하는 요소이다. 한편 남편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나'가 제대로 된 가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가출을 경험하게 된다. 가출을 한 후,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 갈래

장편소설, 전후소설, 성장소설

■ 성격

자전적, 회고적

■ 배경

- ① 시간 - 1950년대 중반
- ② 공간 - 대구 장관동 마당 깊은 집(한국 전쟁 이후의 험난했던 삶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곳으로, 출신과 구성, 직업이 서로 다른 다섯 가구가 십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 공간)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전쟁 직후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

■ 주제

한국 전쟁 직후의 고단한 삶의 현실에 대한 추억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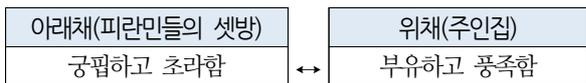
- ① 작가의 전후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14살 소년의 성장담을 서술함. 어린 소년 화자인 '나'의 목소리로 서술하여 객관성을 확보함.
- ③ 중심이 되는 거대한 서사가 없고, 다양한 인물들의 사건을 사슬처럼 연결하였다.
- ④ 등장인물의 내면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드러내며, 1950년대 당시의 생활 풍속을 생생히 재현하는 섬세한 시각이 돋보인다.
- ⑤ 과거와 현재의 화자를 따로 두는 거리두기의 수법을 병행하였다.

■ 소설의 짜임

발단	가족과 멀리 떨어져 고향 장터 주막에서 불목하니 노릇을 하던 '나'가 가족들과 재회하여 대구의 '마당 깊은 집'에서 살게 된다.
전개	중학교 갈 시기를 놓친 '나'는 어머니의 요구로 신문팔이에 나서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해 위층에서 밥 도둑질을 한다.
위기	장작 패기 등 굶은일들만 도맡아 시키며 장자의 역할만 강요하는 어머니를 '나'는 원망하고 야속하게 생각하게 된다.
절정	위층의 부유한 삶을 동경하던 '나'는 그곳에서 열리는 파티를 구경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어머니에게 크게 혼난 뒤 가출을 한다.
결말	'나'의 막내 동생 길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수막염으로 죽고, '마당 깊은 집'을 양육으로 신축하겠다는 주인의 말에 따라 아래층에 살던 식구들은 모두 그곳을 떠나 흩어진다.

❑ **줄거리**

가족들과 떨어져 살던 '나(길남)'는 한국 전쟁 직후에 누나를 따라 대구로 와서,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마당 깊은 집에 살게 된다.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샴바느질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나'에게 장남의 책임을 지우며 온갖 일을 시킨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가출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에게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다. 주인집은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셋돈을 받아 살아가면서, 관리를 초청하여 춤 파티를 여는가 하면 불법으로 큰아들을 미국으로 보낸다. 경기도 연백에서 피란 온 경기댁은 네 식구였는데, 딸 미선이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미군과 결혼하여 도미하게 된다. 준호 아버지는 퇴역 장교인 상이 군인이다. 준호 아버지는 고무팔에 쇠갈고리를 달고 돌아다니면서 잡다한 물건을 파는 행상을 하게 된다. 평양댁네는 평양에서 피란 온 사람들인데, 아들 정태가 월북 미수로 체포되는 일을 겪는다. 어느 날 주인집이 마당 깊은 집을 헐 것을 선언하면서 모여 살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진다. '나'는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굶주림과 설움의 흔적이 사라짐을 느끼게 된다.



■ **작품 더 알아보기**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한국 전쟁 직후 대구의 '마당 깊은 집'에 세 들어 살면서 힘겹게 보낸 세월을 회상한 자전적 소설이다. 고향 진영에서 남의 집에 얹혀 지내다가, 대구로 와서 셋집에 있던 어머니와 누이, 두 남동생과 합류한 길남이는, 위채의 주인집 이외에 아래채에 세 들어 살던 네 가구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작가는 소년 길남의 눈을 통해, 이 사회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정밀히 묘사하여,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작용하는 일상적 삶의 파탄과 왜곡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나'

에게 가장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 가족을 이끌어 가는 강한 면모를 보인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은 '나'를 억압하면서도 '나'가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작품 속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마당 깊은 집'은 전후의 피폐함이 존재하는 어두운 공간이면서도, 그 속에는 서로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결코 마멸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따뜻한 인간적 온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인 '마당 깊은 집'은 한국 전쟁 이후 대구의 장관동 셋집에서 피란살이를 하던 '나'의 유년 시절 추억의 공간이다. 그 집은 부유한 주인집 사람들이 살던 위채와 '나'의 가족들과 같은 피란민네 가구가 함께 살았던 아래채로 이루어져 있다. 그네 가구는 '나'의 식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연백에서 피란 온 경기댁의 세 식구, 퇴역 장교 상이군인의 세 식구, 평양에서 피란 온 평양댁의 네 식구 등이다. 이처럼 '마당 깊은 집'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넘어 출신과 구성, 직업이 서로 다른 스물두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바로 그 작은 사회 속에서 전쟁의 상흔과 싸워야 했던 이들의 신산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 전쟁 직후 고단하고 곤궁했던 우리 이웃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 **이 글의 성장 소설적 특징**

'나'는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도 편모슬하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신 신문 배달을 하며 집안의 살림을 돕는다. 꿈 많은 유년 시절임에도 전쟁으로 인한 가난에 허덕이다 허기를 참지 못해 주인집의 밥 도둑질까지 하고, 엄격한 어머니의 훈육 방식에 반발하여 가출을 한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세상의 냉혹함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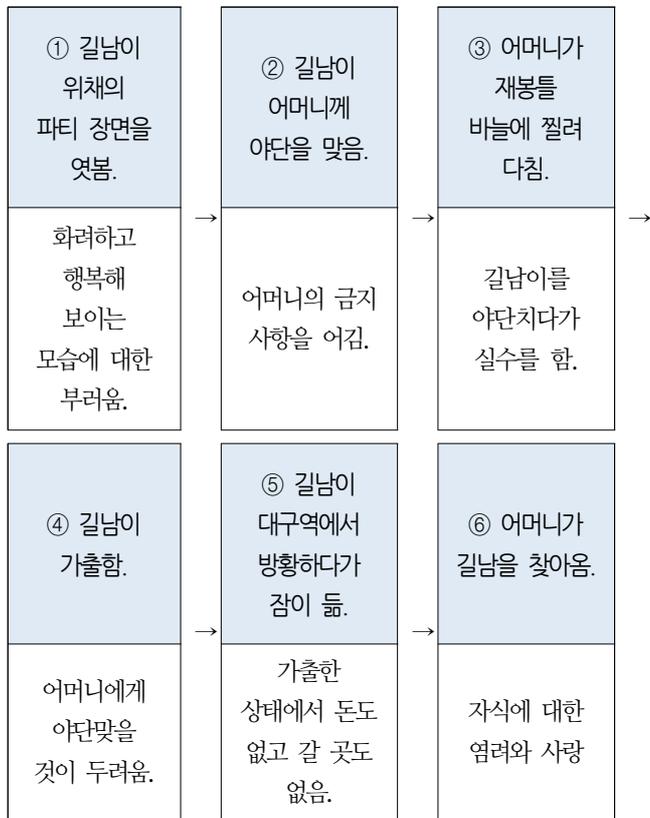
❑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

집안을 이끌어 갈 큰아들이 위채의 크리스마스 파티나 엿보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고 불호령을 했



던 어머니였지만 황량한 역 대합실에서 추위에 골골 앓으려 잠든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만다. 어머니는 ‘나’가 계모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나’에게 유독 엄격하고 냉정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의 상황에서 아들을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가슴 한편에는 늘 자식에 대한 애끓는 모정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걱정과 연민이 어머니의 진심이었음이 그녀의 ‘눈물’ 속에서 느껴지고 있다.

■ **길남이 가출에서 집으로 오기까지의 사건 전개 과정**



■ **‘어머니’라는 기호의 복잡성**

- ① 남편의 부재 속에서 모성보다 부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철저한 현실주의자
- ② 남편의 부재 속에서 장남에게서 남편의 모습과 역할을 기대하려는 모습
- ③ 전쟁의 상황 속에서 진짜 어머니가 아닌 가짜 어머니의 모습만을 느끼는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과 억압 의식의 형상화

■ **가옥 구조와 세대별 거주자**

■ **위채** → 주인집. 여러 대에 걸쳐 경북 의성군에서 알려진 토호 집안으로, 주인아저씨 증조부 되는 이는 조선말 대구부 도사(都事)를 지낸 문벌. 여덟 식구

- ① **주인 아저씨** : 출근 때나 그 얼굴을 잠깐 볼 수 있을 만큼 늘 바쁜 사람, 외박이 잦았고 허구한 날 밤이 깊어서야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옴. 집안일에 무신경하고, 대구 변두리 침산동에 면방직기 열 몇 대를 차려 놓은 공장(오성직물)을 운영함.
- ② **주인 아주머니** : 모란꽃처럼 얼굴이 흰하고 몸이 피동하고, 집안 살림살이보다 바깥으로 나도는 활동가, 대구시 변화가 송죽극장 입구에 귀금속과 시계 파는 점포를 열었고, 유한층 부녀자를 상대로 제주 노릇을 함. 금목걸이에 금팔찌를 자랑하며 구슬백을 팔에 걸치고 다님.
- ③ **노마님** : 안살림을 맡아서 함, 칠순에 이른 연세였으나 아직 허리가 꼳꼳할 정도여서 장을 보러 갈 때도 식모 안씨를 거느리고 나서서 장사치에게 썸을 손수 치름, 아래채 사람들에게 며느리 흉으로 하루를 보냄.
- ④ **성준형** : 다른 학생들과 달리 머리칼에 포마드를 발라 빗고 넥타이 맨 정장 차림으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는 뒷전이고 집에 있을 때면 늘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대청에서 혼자 춤 연습을 함, 별명이 연애 대장이고 시내 사립학교 법대를 보결로 들어감.
- ⑤ **짱구형** : 고등학교 이학년
- ⑥ **플플이형** : 중학교 이학년
- ⑦ **동희 누나** : 주인아저씨 조카, 의성에서 대치로 유학 나옴, 고등학교 3학년

■ **아래채 첫째 방** → 경기택. 경기도 연백군에서 피난옴. 세 식구

- ① **경기택** : 나이는 신 초반, 그 나이로서는 드물게 개성에서 고녀까지 다닌 유식한 아주머니, 배운 만큼 아는 것도 많아 했던 말을 소 여물 씹듯

주절대는 것이 알미워 어머니와 평양댁은 싫어 하지만, 잔소리 많은 노마님에게는 누구보다도 잘 맞추어 줌. 얼굴이 검누렇게 뜬 데다 늘 부기가 있고, 위나 장이 좋지 않은지 시도 때도 없이 버들피리 소리내듯 빌릴리 방귀를 흘리고 다니며 변소 출입도 잦음.

- ② **홍규씨** : 육이오 전쟁 전 개성에서 살 시절 치과 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때 군생활을 위생병으로 근무하여 익힌 기공 기술로 변두리 치과 병원 기공사로 일을 함. 키가 멀대 같은 노총각으로, 그는 키 큰 사람이 싱겁다는 말 그대로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늘 입에 달고 다님.
- ③ **미선이 누나** : 미 8군 피엑스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야간 고등학교에 다님. 모양깨나 내는 멋쟁이 처녀지만 부지런하고 살뜰한 개성 처녀. 늘 껌을 씹고, 입안에서 소리내어 터프림. 한국이 싫어 무슨 수를 쓰든 이 땅을 떠나고 싶다며 미군과 결혼해 미국에 가서 살기를 갈망함.

■ 아래채 둘째 방 → 준호네. 퇴역장교 상이군인 가족. 강원도 평강이 고향. 세 식구

- ① **준호 아버지** : 사람을 볼 때 그 쏘아보는 눈초리가 전쟁터의 적군을 대하듯 적의를 품은 데다, 오른팔을 전쟁터에서 잃어 고무팔 달린 쇠갈고리 두 개가 손가락 구실을 하기 때문에 걸모습은 위협적이지만, 식견이 넓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마다 잠결에 고향을 지르며 전장의 악몽에 쫓기지만 평소에는 말수 적은 조용한 사람임.
- ② **준호 엄마** : 과일 행상을 함. 여인 얼굴이 별에 그을려 구리색이었고, 목과 팔이 가느다란 그네는 한번도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피곤에 찌들어 있음.

■ 아래채 셋째 방 → 평양댁. 네 식구

- ① **평양댁** : 양키시장에서 흰 군복을 파는 장사를 함. 중공군 참전에 따른 1·4 후퇴 피난길에 미

군 비행기의 폭격으로 서방을 잃은 그네는 군복으로 만든 여자용 홀태바지 차림에 역시 험령한 군복 윗도리를 입고 허리에는 전대를 차고 다님. 목소리가 굵직했고 몸이 옆으로 퍼진 팽파집한 그런 여자들의 시원한 성미 그대로 활달한 이복 여자.

- ② **순화 누나** : 감조룩한 얼굴에 쌍꺼풀진 눈이 예뻐, 혼기가 찬 처녀. 오전에는 흰 군복을 세탁하고 오후에는 수선하는 일을 함.
- ③ **정태씨** : 폐가 나빠 늘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음. 늘 화가 끓는 상판의 말라깽이로 좌익사상에 빠져 있음. 식구 외에는 김천댁과만 친하게 지냄.
- ④ **민이형** : 여드름이 울긋불긋하고 정태씨와 달리 몸이 실했고 가까운 경북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며 공부를 잘함. 위채 짱구형과 푼푼이형의 가정교사.

■ 아래채 넷째 방 → 길남이네 집. 어머니와 네 남매

- ① **어머니** : 요릿집 기생들의 조선옷을 샅바느질함. 큰 몸집만큼이나 그 목소리가 늘 컸음. 한번 뺨은 말은 늘 모질게 실천하는 강인함을 지녔으며,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 전쟁 중에 겪은 쓰라린 체험은 어머니를 그렇게 정 없이 메마른 여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성품만은 정직하고 곧음.
- ② **선례 누나** : 야무진 성격으로, 굵는 봉창이라도 하듯 누나는 공부에만 매달림. 사범학교에 진학하여 졸업과 더불어 복사꽃 피는 시골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희망임.
- ③ **나** : 길남이
- ④ **길중이** : 동무가 없어 놀러 다닐 줄을 몰랐고 애늬은이같이 늘 표정도 말도 없음. 시험지는 늘 백 점만 받아 왔으나 결코 뛰어다니는 법이 없는 그는 걸핏하면 다리를 휘청하여 넘어져 무릎을 깨곤 함.
- ⑤ **길수** : 전쟁이 나던 해 4월에 태어나 젖은커녕 미음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꼬치꼬치 말랐던 막내아우. 푸른 풀코를 인중에 달고 다님. 사팔뜨기에 팔다리가 앙상하게 마른 데다 양가밭이걸



음으로 걸음. 그 나이 또래에 비해 말이 어눌한
만큼 생각 또한 아둔함.

■ **바깥채** → 김천덕, 두 식구

- ① **김천덕** : 그네는 대문 왼편 흉담을 열고 골목길에
가게를 내어 사탕이나 건빵 따위의 아이들 주
전부리와 드림통을 얹어놓고 풀빵을 구워서 팝.
기미 잔뜩 앓은 얼굴이 늘 근심에 전 채 겁먹
은 작은 눈을 빠끔하게 뜨고 있음.
- ② **복술이** : 김천덕 아들



13. 한기십팔곡, 권호문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충성과 효도, 유교적 깨달음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충과 효 다르겠는가(설의법)
 只因 **호고져** **호야** **십재 황황(十載惶惶)** **호노라**
(충효를) 다하고자 (마음이 급하여) 십 년을 허둥지둥
 합 〈제1수〉

평생에 원한 것은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황황(十載惶惶)** : 10년
 동안 마음이 급해 허둥지둥함)하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르더니 공명이 느껴세라
서로 견주어 봄 공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
부급 동남(負笈東南) **호야** **여공불급(如恐不及)**
책을 지고 동남으로 스승을 찾아다님
 호는 **뿐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가 **호아라**
걱정되는구나
〈제2수〉

계교(計巧)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세라
 부급동남하여 여공불급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강호자연,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비록 못 이뤄두 **임천(林泉)**이 도하느니라
공명을 이루지 못해도
무심(無心) 어조(魚鳥)는 **자한한(自閑閑)** **호야**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 스스로 한가하니
 는니
 조만(早晚)에 세사(世事) 닛고 너를 조초려 **호**
 노라 〈제3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공명에 욕심없는 물고기와 새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早晚)에 세사(世事) 잇고 너를 좇으려 하
 노라 〈제3수〉

강호(江湖)에 노자하느니 **성주(聖主)**를 브리레고
임천, 강호자연 임금, 즉 부귀공명
성주를 섬기자하느니 **소락(所樂)**에 어긋예라
벼슬을 하고자 하니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
 호온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하노라
자연과 벼슬(세속) 사이의 갈등
〈제4수〉

강호에 놀자하니 임금을 버려야 하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너가 즐기는 것을 어겨야
 하네
 혼자 갈림길(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지게 이러그러 이 몸이 엇디홀고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처(隱處)도 정(定)티 아
도를 행하는 것
났다
언제야 이 뜻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바를 좇음 결단하야 종아 소락(從我所樂)
세상의 일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
히려노

<제5수>

어찌랴 이력저력 이 몸이 어찌할꼬

도를 행하기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히려히려 하되 이 뜻 못하여라

자연 속 즐거움
이 뜻 하면 지락(至樂)이 잇느니라
자연 속에서 사는 지극한 즐거움
우습다 엇그제 아니턴 일을 뉘 올타하던고

<제6수>

하려하려 하되 이 뜻을 못하였네

이 뜻을 하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우습다, 엇그제 아니 하던 일을 누가 옳다고 하
던고

<제6수>

말리 말리 하되 이 일 말기 어렵다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 세속적인 삶
이 일 말면 일신(一身)이 한가하
어지게 엇그제 하던 일이 다 윈 줄 알과라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

<제7수>

그만두자 그만두자 하되 이 일 그만두기 어렵다

이 일 그만두면 내 몸이 한가하다
어찌랴 엇그제 하던 일이 다 그른 줄 알겠네.

<제7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운택하게 함
월 경운(鈞月耕雲)
달빛 아래 낚시하고, 구름 속에 밭을 갈-은거의 삶
명철 군자(名哲君子)는 이틀사 즐기느니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
흐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
가난한 삶을 누리겠다

거)를 하오리라

<제8수>

벼슬길에 나아가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에게 은
덕이 미치게 하고, (자연에) 들어오면 달빛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간다네.

총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럴수록 (자연을 벗 삼
는 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태하니 가난한 삶을 살아가리라
<제8수>



■ 작품 정리

■ 해제

이 작품은 벼슬길에 나가 임금을 섬기는 삶과 자연에 은거하여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당시 사대부의 심회를 술회하는 총 19수의 연시조이다. 특히 본문에 수록된 제1~8수에는 사대부로서의 고민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작가는 입신양명의 삶과 강호한 정을 추구하는 삶을 교차적으로 드러내면서 당시 사대부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 갈래

정형시, 연시조

■ 성격

유교적, 교훈적, 은일적, 전원적

■ 주제

치군택민과 조월경은 사이의 고민과 한가한 삶의 수용

■ 구성

- 제1수: 평생토록 충효를 추구하는 마음
- 제2수: 계교로 인해 입신이 늦은 안타까움
- 제3수: 세사를 잊고 임전을 즐기려는 마음
- 제4수: 자연을 즐기는 일과 벼슬에 오르는 일 사이의 고민
- 제5수: 뜻(앞날)을 결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 제6수: 지락을 따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자조
- 제7수: 벼슬에서 물러나는 일에 대한 고민
- 제8수: 나아가면 임금을 섬기고, 들어오면 자연을 즐기는 군자의 삶

1수	2수	3수	4수
시상전개의 단서	현재의 상황	다른 삶	내적갈등 ①
충효를 이루고자 십년을 보냄	출세를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을 추구함	자연에서의 삶과 세속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함
5수	6수	7수	8수
내적갈등 ②	뜻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자조	세속적 욕망에 대한 갈등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함	자연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깨달음	세속적인 삶을 버리면 편안해진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음	군자로서 자연에서 은거의 삶을 선택함

■ 특징

-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우리말과 한자어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자신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유교적 깨달음의 실천과 안빈낙도예의 소망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화자는 강호 자연에서 물아일체적 삶을 노래하면서 마침내 세속적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자족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세상이 안정되지 않아 부귀를 추구하다 보면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으므로 빈천에 머무른다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화자는 당대의 정치 현실을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소망 ↔ 입신양명에 대한 미련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선택

■ EBS 미수록 부분 전문 정리

<p>청산(靑山)이 벽계(碧溪) 임(臨)하고 계상(溪上)에 연촌(烟村)이라 초당(草堂) 심사(心事)를 백구(白鷗)들 제 알라 죽창(竹窓) 정야(靜夜) 월명(月明)흔 더 일장금(一張琴) 있 느니라.</p>	<p>청산이 시냇가에 있고 시내 위에 내(안개) 낀 마을이라. 초당의 마음을 백구(흰 갈매기)인들 제 알겠는가? 대살 창문 고요한 밤 달 밝은데 한 대의 거문고가 있느니라. [제9수] 고요한 밤의 정취</p>
<p>궁달(窮達) 부운(浮雲) 꺾치 보야 세사(世事) 이저 두고 호산(好山) 가수(佳水)의 오는 뜰들 원학(猿鶴)*이 내 번 아니어든 어니 분이 아르실고. * 원학(猿鶴) : 원숭이와 학, 원숭이와 학은 풍요롭고 부 귀한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p>	<p>빈궁과 영달이 뜬구름처럼 보여 세상사 잊어 두고, 좋은 산 아름다운 물에 노는 뜻을 원숭이와 학이 내 벗 아니거늘(원숭이나 학은 자연을 즐기는 나의 뜻을 알지만) 어느 분이 알아줄꼬? [제10수] 세상사 잊고 자연 속에 사는 뜻</p>
<p>바람은 절로 맑고 들은 절로 붉다 죽정(竹庭) 송함(松檻)*에 일점(一點) 진(塵)도 없 으니 일장금(一張琴) 만축서(萬軸書) 더욱 소쇄(瀟灑)하다 * 송함(松檻) : 솔기둥</p>	<p>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대나무 정원 솔기둥에 한 점 먼지 없으니 거문고 만 권이나 되는 많은 책이 더욱 맑고 깨끗하여라. [제11수]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즐거움과 청빈한 삶</p>
<p>제월(霽月)*이 구름 뜰고 솔 숲에 날아올라 십분청광(十分淸光)*이 벽계(碧溪) 중(中)에 비쳐거늘 어디 인눈 물 일흔 일흔 굴머기 나를 조츠 오는다 * 제월 : 비에 씻긴 달 * 십분청광(十分淸光) : 한껏 밝은 달빛</p>	<p>비에 씻긴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날아올라 충분한(가득찬) 맑은 빛이 푸른 시냇물에 드리워 있거늘 어디선가 무리 잃은 갈매기는 나를 좇아 오는가? [제12수] 비 갠 밤에 자연을 즐기는 몰아일체의 경지</p>
<p>날이 저물거늘 느외야 홀 날 업서 송관(松關)을 닫고 월하(月下)에 누어시니 세상에 뜻글 마음이 일호미(一毫味)도 업다</p>	<p>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소나무 문 걸어 닫고 달빛 아래에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 [제13수] 속세를 잊고 살아가는 삶</p>
<p>월색(月色) 계성(溪聲) 어섯겨 허정(虛亭)의 오나늘 월색(月色)을 안축(眼屬)하고 계성(溪聲)을 이축(耳屬)히 드히며 보며 하니 일체(一體) 청명(淸明)하야라.</p>	<p>달빛과 냇물소리 뒤섞여 빈 정자로 오거늘, 달빛은 두 눈으로 보고 물소리는 두 귀로 들어 들으며 보며 하니 모두가 깨끗하고 밝구나. [제14수] 정자에서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p>



<p>주색(酒色) 좇자 하니 소인(騷人)*의 일 아니고 부귀(富貴) 구(求)차 하니 쏘디 아니 가늌 두어라 어목(漁牧)이 되오야 적막빈(寂寞濱)에 놀자</p> <p>* 소인(騷人) : 시인을 뜻함. = 소인묵객(騷人墨客)</p>	<p>주색을 좇자 하니 문사(글 공부하는 선비)의 일이 아니고 부귀를 구하고자 하니 뜻이 가지 않네 두어라 어부 목동이 되어 고요한 물가에 놀자구나.</p> <p>[제15수] 주색과 부귀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노닐</p>
<p>행장 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테 구하랴.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하노요.</p> <p>* 행장유도 : 세상에 나아감과 물러감에도 도가 있음 * 산지남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나 : 서울에서 벼슬을 하며 늙은 나 * 회보미방 : 어지러운 나라를 구할 보물을 간직함</p>	<p>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감에도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굳이 구하랴. 산 남쪽 물 북쪽(서울)에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나라 구할 보물 가졌다고 오라 말라 하느냐?</p> <p>[제16수] 벼슬에서 물러나는 도</p>
<p>성현(聖賢)의 가신 길히 만고(萬古)에 흥가지라 은(隱)커나 견(見)커나 도(道) 언디 다르리 일도(一道) 오 다르디 아니커니 아밧된들 엇더리</p>	<p>성현이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숨거나 나아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한 가지 도(道)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텐들 어떠하리</p> <p>[제17수] 은둔하거나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한 가지 도(道)임을 인식</p>
<p>어기(漁磯)에 비 개거늘 녹태(綠苔)로 독글 삼아 고기를 헤이고 낚글 뜯을 어이하리 섬월(纖月)*이 은구(銀鉤) 되어 벽계심(碧溪心)에 잠겼다.</p> <p>* 섬월 : 초승에 뜨는 가느다란 달</p>	<p>자갈 깔린 물가(낚시터)에 비 개거늘 푸른 이끼를 돛을 삼아 고기를 헤아리며 낚을 뜯을 어이하리. 초승달이 은낚시 되어 푸른 물에 잠겼구나.</p> <p>[제18수] 낚시하며 바라 본 달밤의 정경</p>
<p>강간(江干)에 누어서 강수(江水) 보는 뜬 서자 여사(逝者如斯)*하니 백 세(百歲) 긴들 먼근이로 십 년 전(十年前) 진세일념(塵世一念)*이 어롬 녹듯 혼다</p> <p>* 서자 여사(逝者如斯) : 가는 것이 저와 같으니 * 진세일념(塵世一念) : 속세에 대한 집착</p>	<p>강가에 누워서 저 강물 보는 뜻은 강물 흐르는 것이 저와 같으니 백 년인들 길겠느냐 십 년 전 속세 집착이 얼음 녹듯 하는구나.</p> <p>[제19수] 속세의 집착에서 벗어남</p>